

- 주요 뉴스: 미국 9월 소비자물가, 13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 압력은 경제 전반으로 확산
 - 9월 FOMC 의사록, 테이퍼링은 11월 혹은 12월에 시작하여 내년 중순에 종료
 - G20 재무장관, 글로벌 법인세율 도입·경기회복 유자·인플레이션 경계 등을 강조
 - 중국 9월 수출, 전례난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비 큰 폭 증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11월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 불구하고 주가 상승

주가 상승[+0.3%], 달러화 약세[-0.5%],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국채금리 하락과 양호한 기업이익 지속 전망 등이 영향
유로 Stoxx600 지수는 기업실적 기대와 중국 수출지표 호조 등으로 2주래 최고치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등이 원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6%,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성장 둔화 우려 등이 반영
독일은 그 동안 매도가 과도했다는 평가 등으로 저가매수 유입되며 4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87.7원, -7.0원) 0.6% 하락, 한국 CDS 보합

		10/13일	10/12일	전일대비			10/13일	10/1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363.8	4,350.7	0.30%	국채 금리 10y	미국	1.54%	1.58%	-4bp
	유럽	460.39	457.21	0.70%		독일	-0.13%	-0.09%	-4bp
	중국	3,561.8	3,546.9	0.42%	CDS 5y	한국	22bp	22bp	0bp
	일본	28,140	28,231	-0.32%		중국	56bp	56bp	0bp
	한국	2,944.4	2,916.4	0.96%	위험 지표	EMBI+	-	380	-
환율	달러지수	94.03	94.52	-0.52%		VIX	18.64	19.85	-6.10%
	유로화	1.1594	1.1530	0.56%		WTI유	80.44	80.64	-0.25%
	엔화	113.25	113.61	0.32%	원자재	구리	449.1	432.6	3.83%
	위안화	6.4284	6.4489	0.32%		금	1,793.0	1,760.2	1.86%
	원화	1,193.8	1,198.8	0.42%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9월 소비자물가(CPI), 13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 압력은 경제 전반으로 확산**
 - 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달 CPI는 전년동월비 5.4% 상승하여 전월(5.3%) 및 예상치(5.3%)를 모두 상회. 근원 CPI는 4.0% 올라 전월과 동일. 항목별로는 식료품, 주거비, 연료비 등이 큰 폭으로 오른 반면, 중고차와 의류비 등은 하락
 - 최근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수요 증가, 코로나 19 여파에 의한 공급 차질, 필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상승, 주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거론. 이러한 영향으로 경제 전반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
 - ING의 James Knightley는 주거비 상승, 재고 부족, 유가 상승 등을 고려 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에 연준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9월 FOMC 의사록, 테이퍼링은 11월 혹은 12월에 시작하여 내년 중순에 종료**
 - 다수의 연준위원들은 위와 같은 의견을 피력. 테이퍼링을 시행하면 월간 매입규모가 800억, 400억달러인 국채와 모기지담보부증권을 매월 각각 100억, 50억달러씩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한편 18명의 연준위원 가운데 9명은 내년 금리인상을 주장
 - 많은 연준위원들이 공급 차질과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이 향후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 다만 이로 인해 고용개선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
- **미국 대통령, 공급 병목 완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
 -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기업들이 항만 사용 확대, 운송 시간 단축 등에 나서도록 요청. 백악관 관계자들은 공급 병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말 연휴 기간에 물가 상승과 물품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
- **G20 재무장관, 글로벌 법인세율 도입·경기회복 유지·인플레이션 경계 등을 강조**
 - 해당 사안을 위해 경기부양책의 조기 종료를 피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 또한 IMF는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해 6500억달러 규모의 신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IMF 재정보고서, 저소득 국가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지연될 전망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들은 백신 접종률과 재정 여력 및 차입 능력 등이 취약해 경기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평가. 또한 저소득 국가의 경제는 금리가 상승할 경우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 중국 9월 수출,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비 큰 폭 증가

- 해관총서에 따르면, 같은 달 수출은 전년동월비 28.1% 늘어나 전월(25.6%) 대비 증가율이 상승. Oxford Economics의 Louis Kuijs는 글로벌 경기회복, 공급 차질 완화, 당국의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수출 전망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

■ 러시아 대통령, 필요한 만큼 유럽에 천연가스의 추가 공급 가능

- 푸틴 대통령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공급 부족이 아닌 정책 실수가 원인이라고 주장.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협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침언. 한편 유럽위원회는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해 천연가스의 공동 구매를 검토

■ 일본 총리, 일부 국채의 영구채 전환은 주의가 필요

- 최근 재원 확충을 위해 국채 가운데 일부를 영구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먼저 재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OPEC, 원유 수요는 소폭 감소할 전망. 증산에는 계속해서 신중한 입장 유지

-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수요 증가분을 일일 580만배럴로 예상하여 이전(일일 596만배럴) 대비 하향 조정.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여타 부분에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13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8월 산업생산(전월비): -1.6%, 7월(1.4%), 예상치(-1.6%)
- 독일 9월 소비자물가(확정치, 전년동월비): 4.1%, 8월(3.4%), 속보치(4.1%)
- 중국 9월 위안화 신규대출(조위안): 1.66, 8월(1.22), 예상치(1.85)

■ 주요 경제 이벤트(10/1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뉴욕 연은 총재 강연, 9월 생산자물가, 10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중국 전력난,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위상 약화 초래 - The New York Times

(China's Power Problems Expose a Strategic Weakness)

- 중국의 전력부족 문제가 산업 전반에 파급되면서,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위상이 시험받고 있는 상황. 전력난 해소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가 어려워지더라도 더 많은 석탄 채굴에 나서겠다는 입장
- 친환경 에너지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은 중국 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력이 충분하지 않고, 비용 부담이 커 어려움에 직면. 아울러 연료 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의 위험도 불가피

■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회피를 위해 예상보다 강한 긴축 가능성 - Financial Times

(The sequencing trap that risks stagflation 2.0)

- 1970년대 연준 의장이었던 Arthur Burns는 석유파동과 기상이변(엘리뇨)으로 촉발된 물가상승을 일시적 요인으로 판단했지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귀결. 최근의 공급차질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또한 연준은 일시적 요인이라고 판단
- 아울러 대규모 양적완화와 평균물가목표제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신속성을 결여시키는 요소. 공급 차질도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공급망 혼란 속 수요증가도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예측하게 하는 부분
- 예일 대학의 Stephen Roach는 연준이 1970년대 상황과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으며, 스태그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역설

■ 높은 임금 상승률, 장기적 측면에서 가장 저평가된 인플레이션 위험 - 블룸버그

(Wage Growth Is Great. The Long-Term Inflation It Creates Isn't.)

■ 내년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예측, 오류 가능성이 상당히 큰 편 - WSJ

(Think You Can Predict Inflation? Think Again)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